

예언의 기술

(The Art of Prophecy)



윌리엄 퍼킨스 저
William Perkins

전 화 령 역

캄보디아 국제개혁신학교

머리말

본 페이지는 복음의 신실한 목사들과 거룩한 지식을 관심있게 추구하는 자를 위해 기록되었다.

설교 준비는 교회의 일상적 일이며 언제나 막대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사실상 신학적 원리에서 설교학 만큼 더 어려운 도전이 있을 수 없다. 우리가 그 위엄과 용도를 생각하든지 않든지, 그 주제는 정말 “더 높은(more higher)차원”의 은사이고 그 자체가 예언이다.

설교 은사의 존엄성은 병거를 타고 가는 한 숙녀처럼 다른 언어와 지식의 은사로 자신의 우아함을 의식하고 서있는 몸종과 같다.

이 우아함을 지킴에 설교는 이중 가치를 가진다. 즉, (1) 그것은 교회를 모으고 택한 모든 자를 불러 모으는 도구이다. (2) 그것은 주의 우리에서 이리들을 쫓아내는 것이다. 설교는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회개의 생활로 불경건한 이교 생활 스타일에서 절제되고 변화받은 한 영혼의 유혹자(the alluer of souls, flexanima)와 같다. 역시 그것은 고대 이교의 근본을 흔들고 더욱 최근에는 적 그리스도의 힘줄을 끊어 놓는 무기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장 탁월한 영적 은사가 어느 것이냐고

물으면 분명히 그 대답은 예언 (prophesying) 이라고 말해야만 한다.

어떤 것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풍성하고 다양한 견해가 주의 깊어 나타나야만 한다. 그러나 이런 일상의 일이 다른 훈련에 쏟는 관심과 비교할 때 이것은 아주 불충분하고 약한 수법으로 자주 묘사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신학자들의 문서들을 주의깊이 연구하고 그들의 교훈에서 일련의 규칙과 원리들을 구성하여 기억하기 쉽고 유익한 방법으로 그들을 설명하려고 했다.

지금 나는 설교에 관한 이런 반성에 몰두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치가 있다면 인정을 받고 불충분하다면 비판을 받아 거절되기를 원한다. 만일 이런 설교 스타일을 좋아한다면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자. 어떤 의문을 가졌다면 나에게 물어라, 그래서 의심이 풀렸다면 나와 함께 바른 길로 돌아오라. 당신이 나를 살피고도 경건한 근심으로 채워진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 책에 대하여 아름다운 불평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소수라 할지라도) 나의 양심은 모든 비평을 충분히 방어할 것이다. 이는 나의 유일한 관심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그에게 위탁하고 그 분뿐 아니라 그 분을 위한 예언의 기술에 관한 이 작은 책을 그렇게 할 것이다.

윌리엄 퍼킨스

1592.12.12

서론 (Introduction)

예언 연구는 예언을 바로 행하는 힘을 얻기 위하여 마음을 위탁함을 뜻한다. 예언(혹은 예언하기)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이웃의 구원과 관련된 선지자의 거룩한 공적 선포를 가리킨다. 이것은 다음 귀절이 잘 말해준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고전14:3)”.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고전14:24).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롬1:9).

I. 예언의 기술 (The Art of Prophecy)

예언은 말씀 설교와 공적 기도, 두 파트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선지자 (즉, 말씀 사역자)는 오직 두 가지 의무를 가졌기 때문이다. 하나는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고 다른 것은 백성들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다.“혹은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롬12:6)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창20:7).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하였으니”(대상25:1) “저희가...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하여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이를지라도...”(왕상18:26, 29). 그래서 모든 선지자의 일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는 것이고(설교에서) 다른 하나는 하나님 백성의 음성으로 말하는 것이다(기도에서).

“네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렘15:19)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느8:6).

말씀의 설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신해서 예언하는 것이다.
설교를 통하여 듣는 사람들은 은혜의 상태로 부름을 받고 그 안에서 보존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하여 당신을 위해 간구 한다”(고전5:18,20).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살후2:13,14)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롬1:16)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잠29:18)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롬10:14).

2.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만은 그 완전성과 내적 일관성을 따라 설교되어야 한다. 성경은
설교자가 수고할 유일한 분야이며 설교의 절대적 주제이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눅16:29)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즉
그들은 자신들이 고백한 모세의 교훈을 가르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키되”(마23:2-3).

하나님의 말씀은 경건에 의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 진리를 계시하는 하나님의 지혜이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약3:17) “하나님의 종이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딤후1:1). 말씀의 절대적 특징인 그 성격과 효과가 우리를 예찬하게 만든다.

성경의 성격

성경의 본질적 탁월함은 완전성, 순결성, 그 영원성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그 완전성(perfection)은 그 충족성과 순결성으로 이루어진다. 그 충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너무 완전하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덧붙일 수 없고 적절한 목적에 속하는 것으로부터 이탈될 수 없는데 있다. “여호와와 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시19:7)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신12:32)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시리라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의 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계22:18-19)

성경의 순결성(Purity)은 거짓과 오류 없이 그 자체가 완전한 사실에 놓인다. “여호와와 의 말씀은 순결하여 흠도가니에 일곱번 연단한 은 같도다.”(시12:6)

말씀의 영원성은 침범될 수 없는 특성이다. 그것은 명령하는 모든 것이 충분히 성취

될 때까지 폐지될 수가 없다.(마5:18)

성경의 효과

성경은 두 가지 절대 능력을 갖는다.

1. 사람 영혼 속에 파고들어가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이한 검보다 더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까지 하며”(히4:12)

2. 양심을 묶는 능력, 즉 죄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고 고소하는 하나님 앞에서 복종시키는 능력.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할 것이어늘” (약4:12) “대저 여호와와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여호와와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자시요 여호와와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사33:22)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 들어있다. 성경은 성령의 서기나 비서로 직접 부름 받은 사람들에게 의해 교회를 위하여 적절한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다 말한 것임이니라.”(벧후1:21) 우리는 성경을 먼저 진리가 발견되고 검토된 조력자와 일꾼에 의해 사용되어진 줄 자 곧 정경이기 때문에 정경적 성경이라

부른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갈6:16) 그래서 교회 안 모든 문제의 최종 결정과 판단은 그것으로 이루어져야한다.

성경 메시지의 총화와 본질은 다음과 같은 논증(삼단 논법)으로 요약될 수 있다.

대 전제: 참 메시야는 다윗의 씨로부터 나온 하나님이며 사람이어야 한다. 그는 하늘의 계신 아버지의 가슴에서 출생되셨다. 그는 율법을 만족시키실 것이고 그는 신자들의 죄를 위한 제사로서 드러질 것이다. 또 그는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실 것이다. 그는 하늘로 승천하실 것이다. 정한 시간에 그는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다.

소 전제: 마리아의 아들 나사렛 예수는 이 모든 자격을 갖추셨다.

결론: 그러므로 예수는 참 메시야이시다.

이런 삼단논법의 대전제는 모든 선지자들의 문서의 범위이며 주된 내용이다. 소전제는 복음서 기자들과 사도들의 문서에 나타난다.

3. 성경 내용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어진다. 구약은 성경의 첫 부분이다. 선지자들에 의해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은 주로 행위에 대한 옛 언약을 나타낸다(모세와 선지자들,

눅16:29)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눅24:27). 성격상 역사서, 교리서, 그리고 선지서로 서 66권으로 나누어진다.

구약

역사서

역사서는 일어난 일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며 다른 책에 설명된 교훈을 논증하고 증거한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고전10:11)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한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롬15:4) 15권의 역사서가 있다.

- 1 창세기는 개인이 가진 문맥 안에서 창조, 타락, 최초의 구원 약속의 역사와 한 개인 가정의 문맥 안에서 보존된 교훈 상태를 보인다.
- 2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이다. 그것은 출애굽과 율법수여와 장막에 관해 말한다.
3. 레위기는 의식적인 예배 규정이다.
4. 민수기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 활동의 역사이다.

6.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에 의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차지하는 것을 묘사한다.
7. 사사기는 여호수아 시대부터 엘리 시대까지 이스라엘의 교회와 일반적 부의 부패한 상태와 소망 없음에 관한 역사를 보인다.
8. 룯기는 룯의 결혼과 번성에 관한 설명이다.
9. 사무엘 상하는 제사장 엘리와 사무엘 시대, 사울과 다윗의 통치 기간을 기록한다.
10. 열왕기상하는 이스라엘과 유다 땅에 일어난 일을 말한다.
11. 역대상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 증가 그리고 파멸 원인의 역사를 말하고 그리스도의 족보를 설명한다.
12.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역사와 예루살렘의 회복의 시작 역사를 말한다.
13. 느헤미야는 완성되지 못하는 도성의 복구를 설명한다.
14. 에스더는 에스더의 활동으로 유대 교회가 보호받은 역사이다.
15. 욥기는 마침내 행복한 결과를 가져온 그의 고난과 여러 수난의 원인들을 추적하는 역사이다.

교리서

교리서 혹은 교훈서는 우리 신학의 교훈을 가르치고 설명하는 책이다.

1. 시편은 교회와 교회 개인들의 모든 상태에 적절하고 거룩한 노래이고 마음에 간직한 은혜의 노래로 이루어진다.(골3:16)

2. 잠언은 크리스찬 행동지침서로서 하나님에 대한 경건과 우리 이웃에 대한 공의를 가르친다.
3. 전도서는 하나님의 경외에서 오는 경험에 비추어 인간의 모든 부귀의 허사를 나타낸다.
4. 아가서는 신랑과 신부 간의 관계에 그리스도와 교회 (남편과 아내)간의 알레고리칼한 관계를 묘사한다.

예언서

선지서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서 완성되는 백성의 죄악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교회의 구원에 대한 예언을 포함한다. 선지자들에 대한 이런 예언은 회개에 대한 부르심으로 나아가게 한다. 그들은 언제나 회개한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위로를 지적한다.

그들은 훨씬 더 큰 길으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문자로 마할랄렐하스바스라 쓰라."(사8:1),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하라."(합2:2) 설교했던 설교의 요약을 기록함으로서 청중의 기억과 이해를 돕는 것이 선지자들의 특징이다.

선지서들은 보통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구분된다. 대선지자들은 예언의 내용을 세밀히 기록한데 거기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다니엘이 포함된다. 역시 요시아

왕이 죽을 즈음에 유대인들의 불행을 표현하는 예레미야애가가 여기 포함된다. 소선지자들은 미래의 일들을 어떤 때는 많이, 어떤 때는 간단히 취급한다. 이들에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포함된다.

이렇게 구약은 마친다.

신약

신약은 성경의 둘째 부분이다. 그 내용은 사도에 의해 헬라어로 기록되었고 적어도 그들에 의해서 확증되었다.(참고, "사도와 선지자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 엡2:20) 그들은 분명히 새 언약에 대한 가르침을 설명한다.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마가요한의 관찰과 지명으로 인하여 기록된 마가복음을 인정했다. 그리고 복음기자 요한은 누가복음을 인정했다. 바울서신 속에 두 곳(딤후2:8와 롬2:16)은 그가 복음서의 저자였다는 유세베우스의 견해는 별로 큰 설득력이 약하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한 책으로서의 복음을 말하지 않고 그의 전체사역에 대해 나는 악한 자들의 고통과 심지어 사슬에 매이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말한다. (딤후2:9)

신약은 역사서와 서신서로 이루어진다.

역사서

1.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4복음서는 그리스도의 잉태서부터 승천하시기 까지 그의 생활과 행동과 가르침에 관한 이야기를 포함시킨다. 이 네 명의 저자들 중 두 사람은 역사적 진리에 관해 더 큰 증거의 확신을 줄 수 있기 위해 친히 듣고 목격했다.

복음서들 간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마태는 그리스도가 구원하신 교리를 분명히 설명할 수 있다. 마가는 제롬이 지적한대로 그의 복음이 마태복음의 요약이 아닐지라도 간단한 역사를 기록한다. 그는 그의 내용을 아주 다른 방법으로 시작하고 어떤 일반적인 것과 새로운 재료를 서로 섞어 다른 순서로 진행한다. 누가는 정확한 역사를 묘사하고 확실한 한 질서가운데서 사건들을 묘사한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우리가 거기서 나온 유익을 설명하려는데 심혈을 기울인다.

제롬은 그들의 다른 접근으로 인하여 복음서기자들을 달리 구분한다. 그는 말하기를 마태복음은 그리스도의 사람되심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사람 같고 마가복음은 사자후를 토하는 것 같은 세례요한의 설교로 시작하기 때문에 사자같다. 누가복음은 제사장 스가랴가 제물을 드림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소로 비교된다. 요한복음은 모든 것을 끌어들이며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시작하였기 때문에 독수리로 비교했다.

2. 사도행전은 베드로와 바울 역사와 최대교회의 다스림을 역사적 순서로 설명한다.

3. 계시록은 사도요한이 세상 끝까지 살았던 것으로부터의 교회 상태에 관한 선지자의 역사이다.

서신서

서신들 중 13권은 바울로부터 나왔고 다음과 같은 주제로 이루어진다.

1. 로마서: 칭의 성화 크리스찬 생활의 의무
2. 고린도전서: 고린도교회의 악행을 개혁함
3. 고린도후서: 원수에 대한 사도 자신과 그의 사도직을 방어함
4. 갈라디아서: 율법의 행위가 없는 믿음으로서의 칭의
- 5 에베소서
6. 빌립보서
7. 골로새서
8. 데살로니가전서
9. 데살로니가 후서: 이 책은 크리스찬 생활의 교훈과 의무로서 교회를 견고하게 한다.
10. 디모데전서
11. 디모데후서: 교회를 바르게 지도하는 형태를 묘사한다.
12. 디도서: 크레데에 있는 교회를 가르침
13. 빌레몬서: 도망자 노예인 오네시모의 용납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직분을 취급하고 선행의 열매를 만드는 믿음의 성향을 설명한다.

야고보서는 믿음이 따른 선행을 설명한다.

베드로전서와 후서는 새로운 순종의 성화와 행위를 다룬다.

요한일서는 진리 안에서의 보호에 관한 “선택된 자매”에게 쓰여졌다.

요한삼서는 물질의 환대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가이오에게 쓴다.

유다서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영향과 맞선 믿음의 파수를 강조한다.

바로 이것이 정경에 속하는 책들이다.

성경의 정경

다른 것 외에 오직 이 책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책이라는 강한 증거가 있다. 어떤 증거들은 이것을 우리로 알게 하고 다른 증거는 그것에 대한 표현을 제시한다. 전자 경우에 그의 마음 안에서 개인에게 말씀하실 뿐 아니라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효과적으로 설득시킴으로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내적 증거가 있다.“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59:21)

우리가 설득당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성령받은 선택된 자는 무엇보다 먼저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한다. 더욱이 그들은 자기가 분별하는 음성을 알고 그들이 인정하는 것을 믿는다. 마침내 그들이 성령의 인친 사실을 믿는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엡1:13)

교회는 성경의 정경에 대한 증거를 가질 수 있으나 그것이 내적으로 그의 권위를 믿도록 설득시킬 수는 없다.

만일 교회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크다면 인간구원의 모든 상태가 인간에게 의존될 수 있다.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한 한 가지 이상의 반대는 이런 교훈에 대해 일어났다..

반대1. 성경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것이 교회의 판단을 벗어난다는 것은 우리를 분명하게 해 주지 못한다.

대답: (1) 이것은 부적절한 반대이다. 그것의 첫 번째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예, 성경자체가 하나님의 입기운을 받았다) 하반부는 어떻게라는 수법을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대상의 인격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2) 성경자체는 모든 인간적 서원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소유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이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가 듣고 읽고 묵상할 때 영감이 풍성한 설득으로서 우리 마음에서 일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교회가 성경이 믿어져야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교회가 말한 바가 먼저 성경에 의해 말씀하신 것이라는 이유로 그것을 믿는다.

사실상 교회는 믿음을 떠나서 설 수 없고 그 존재를 생각할 수 없다. 이는 믿음이란

말씀을 떠나서는 존재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말씀은 그 자체가 믿음의 법칙이고 대상이지 단순한 사람의 판단이나 가장 거룩한 사람의 판단이 아니다.

(3) 성경을 의심하는 사람은 교회의 모든 증거를 의심하게 된다.

반대2: 교회는 각 문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판단을 하는데 적절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의 특별 회의로부터 보내진 편지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행15:28)라는 구절로 표현되었다.

대답

(1)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주권적이고 최고의 판단은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특권이다. 판단의 사역(사역적 판단)은 성경을 따라 판단해야하기 때문에 오직 교회에게만 주어진다. 이는 교회가 항상 이것을 행하지 않고 가끔 실패하기 때문이다.

(2)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열린 회의에 출석했다. 그들 권위는 믿어졌고 그들은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다. 그러나 교회 사역은 더 이상 그런 직접적 권위를 소유하지 못한다.

그래서 교회가 성경에 관한 선포와 간증에 관한 증거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논증하려하거나 설득하려하지 않는다. 오직 이것은 그것을 증거하고 여러 면에 정경임을 증거한다. 그렇지만 이 증거는 복합적인 면을 갖는다.

첫째, 성경은 교회의 영구한 인정을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롬3:2)”을 위탁받은 구약시대 신자들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것은 신약과 교회에서도 계속된다.

- (a) 이 책으로부터 증거를 인용한 그리스도와 사도로부터
- (b) 오리겐, 살디스의 멜리토, 아타나시우스, 시릴, 키프리안, 루피우스, 힐레이, 제롬, 에피파니우스, 그레고리 등의 교부들로부터
- (c) 니케아와 라오디게아의 회의로부터

둘째, 이교사상가들과 성경 교훈과 동일한 것들을 가르친 믿음의 원수들조차도 부분적으로 인정했다. 즉 호머, 플라토, 요세보스, 락탄티우스, 씨세로, 버질, 수토니우스, 타키투스 그리고 플리니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셋째, 그 말씀의 전통이 있다. 그것은 말씀의 시작 이래 인간역사의 기록을 포함한다. 가장 오래된 세속적인 역사와 대조함으로서 그리스도 오시기 전, 5세기에 살았던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전에는 기록되지 않았다.

넷째, 성경의 기원은 적 그리스도와 유대인의 배교에 대한 이방인들의 부름과 같은 예언 성취로 확고하게 되었다.

다섯째, 참되신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예배, 하나님이 구주라는 진리와 같은 성경 교훈의 본질이 여기 있다.

여섯째, 성경의 다른 부분들과의 조화

일곱째, 교회가 경험한 모든 번성의 때나 일반적인 배교의 때를 지나는 동안, 성경의 놀라운 보존 방법

여덟째, 성경의 선택, 그것은 백성을 회심시키고 그들의 생각과 욕망을 완전히 반대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자체로서 그들을 이긴다.

아홉째, 하나님의 엄위로 채워진 그 말의 단순성

마지막, 거룩한 자들이 그들의 부패성을 기록하는 것을 피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세는 스스로 말하기를 자신 이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자라고 한다. 그가 이 둘을 동시에 증거하는 것은 이 저자가 성령으로 인도된 사실을 믿게 하는 하나의 논증이다. 복음서에 묘사된 그리스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임을 알고 묘사한다. 그는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모든 사람에게 명령한다. 만일 이런 주장이 옳지 않고 사실이 아니라면 그리스도는 하나님 같이 스스로 높이려고 했을 때 아담과 헤롯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셨을 것이다. 그러나 실상 일어난 것은 교회를 핍박한 헤롯, 유대인들, 빌라도, 여러 황제들에게 죽음으로 갚으시는 것이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의 신적 기원의 증거들이다. 이런 관찰의 빛 아래서 토빌서, 므낫세 기도서, 쥬딧서, 바룩서, 예레미야서신, 다니엘 부록, 에스라3, 4권 에스더 부록, 마카비1, 2서, 지혜서, 전도서는 다음 이유 때문에 정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1. 그들은 선지자에 의해 기록되지 않았다.,
2. 그들은 히브리어로 기록도 되지 않았다.
3.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이 책들의 인용을 신약에 하지않았다.

4. 그들은 성경을 대조하는 거짓 교훈을 포함한다.

4. 성경 해석

이렇게 우리는 설교의 대상에 관해 토론하였다. 그것에 관한 두 부분인 설교 준비와 설교 실제로 구분된다. 여기서 우리 주의 말씀이 적절하다. “***”(마13:52)

준비

주의 깊은 개인적 연구가 준비되어야한다. 여러 성경이 이것을 강조한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착념하라.”(딤후4:13)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벧전1:10)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년 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칠십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단9:2) 경건한 연구에 관해 아래 방법을 따라야한다.

첫째, 마음과 기억 속에 성경 교훈에 관한 요약과 본질을 분명히 정의하고 구분하고 설명하라.

둘째, 다음 순서로 성경을 읽어라. 문법적, 수사적, 논리적 분석과 적절한 부수적 연구를 사용하여 먼저 바울의 로마서를 읽고, 그 후에 요한복음을 읽어라. 이것은 신약의 열쇠이다. 그 때 신약의 다른 책들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당신이 이것을 완성한 후 특히 구약의 교훈서인 시편을 읽고 그 후 선지서들 중 특히, 이사야를 읽어라, 마지막으로 역사서인 창세기를 읽어라. 그것은 사도들과 복음전하는 자들이 이사야와 시편을 많이 인용했고 구약의 다른 어느 구절도 신약에

자주 인용하지 않았다.(이사야와 시편의 약 60구절을 인용했다)

셋째, 우리는 현대나 고대의 정통 기독교 저자들로 부터 도움을 얻어야한다. 이는 사탄이 우리 시대에 시작한 교회 회복을 저지하기 위하여 죽은 자로부터 옛 이단을 일으키고 있다. 삼위일체 이단들이 아리우스와 사베리우스의 이론으로 새 옷을 입고 있다. 급진적인 재 세례파들은 옛센파, 카타리파, 열정주의자들, 도나티스트들의 교훈을 반복하고 있다. 도덕폐기론자(Libertine)는 영지주의와 카르포크라티안의 이론을 반복한다. 세르베트스는 사모사타의 바울, 아리우스, 유티케스, 말시온, 아폴리나리우스의 이교를 부흥시킨다. 마지막으로 복음적인 교회로부터 이탈된 분파주의자들이 키프리안에 의해서 파피아누스와 아우디안과 도나티스들에게 귀착된 이론과 사실 모습으로 다시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이교를 거절하고 논박할 기민한 방법을 찾을 필요가 없다. 공의회나 교부들에 의해 발견된 고대의 교훈들은 이미 잘 점검되었고 여전히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중요하거나 가치가 없는 것에 관한 그대의 연구에 생긴 것은 옛 것과 새 것을 가져오기 위해 어떤 목록이나 일상 서적에 기록되어야한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 성경의 의미를 바로 알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구해야한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을 보게하소서” (시119:18)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서서 눈에 발라 보게하라.”(계3:18)

일반서적

일상적인 책들을 편집하는데 어떤 실제적인 제언이 있다.

1. 모든 교훈의 가장 공통적 주제의 목록을 만들어라.
2. 그 책의 오른 페이지에 공란을 만들거나 같은 부분으로 구분하라. 특별한 공란이 이용되도록 다음 페이지의 공란을 남겨두고 중요한 주제를 각 페이지에 기록하라.
3. 당신이 읽은 모든 것을 기록하려고 하지 말고 단지 기억되고 이용될 수 있는 것만을 기록하라. 인용을 기록하지 말고 단지 적절한 주안점을 기록하라. 당신이 일상적인 책과 관련된 곳에서 발견할 수 있기 위하여 그 책에 노트하라.
4. 어떤 것은 정확한 카탈로그로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울지도 모른다. 쉽게 다시 찾아볼 수 있도록 알파벨 순서로 배열하라.
5. 책에 너무 많은 것을 답하지 말라. 그들이 주의깊이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으면 기록할 필요가 없다.

준비는 두 파트인 구절 의미의 해석과 차례대로 해석하는 적당한 구분으로 이루어진다.

해 석

해석은 단순하고 충분하고 자연스러운 의를 가져오기 위하여 성경의 말과 진술을 열어놓는 것이다.

이런 접근과 대조해서 로마 교회는 성경 구절의 사중 의미 즉, 문자적 의미, 풍유적 의미, 비유적 의미 그리고 유추적 의미가 있다고 믿는다. 이것의 한 예가 멜기세덱이란 인물에게서 발견될 수 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빵과 포도주를 제공했다(창14:18). 문자적 의미는 그가 가져온 음식과 함께 살렘 왕은 여행으로 피곤한 아브라함의 군인들을 신선케 했다는 것이다. 풍유적 해석은 그 제사장인 그리스도를 어떤 미사 속에서 드러지는 것으로 본다. * 한 의미는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본다. 유추적 해석은 하늘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새 신자에게 생명의 떡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성경의 사중 의미의 패턴은 거절되어야하고 분쇄되어져야한다. 성경은 오직 하나의 의미 곧 문자적 의미만을 갖는다. 풍유는 단지 동일한 의미를 다른 표현으로 말한 것이다. 유추와 비유는 그 구절의 의미를 적용한 방법이다.

성경의 중요한 해석자는 성령이시다. 율법을 만드신 그는 율법의 최고, 최상의 해석자이시다. 해석의 최고의 절대 수단은 성경 자체이다. “하나님의 율법 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느8:8)

그러나 성경 구절을 해석하는데 부가적으로 도움을 주는 3가지 수단은 믿음의 유추, 특별 구절의 상황, 그리고 다른 구절과의 비교가 된다.

믿음의 유추란 잘 이해된 분명한 구분으로 끌어낸 성경적 요약을 가리킨다. 거기에는 두 요소가 있다. 첫 요소는 사도신경으로 조정되는 믿음과 관련된 것이다. 두 번째

요소는 십계명의 긍휼과 사랑과 관련을 갖는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딤후1:13)

한 구절의 상황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분명해 질 수있다. 누가 말하는가? 누구에게 말하는가? 왜 말하는가? 언제 말하는가? 어디서 말하는가? 무슨 목적으로 말하는가? 이전 상황은 어떠한가? 무슨 결과가 일어났는가?

다른 구절의 비교는 그들의 의미가 더 분명해지도록하기위하여 서로 비교하는 일이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다 굴복시키니라.”(행9:22)

다른 구절을 비교하는 것은 두 가지를 포함할 수 있다.

1. 처음 것은 한 문맥의 진술을 성경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것과 비교한 것이다. 예를 들면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어여 홀연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시6:10)가 나온다. 이것은 신약에 6번 반복되었다(마13:14, 막4:12, 눅8:10, 요12:40, 행28:27, 롬11:8)

본문이 이와 같이 반복될 때 그들은 가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변형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주해적 요소: 그들의 해석을 분명히 함.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시78:2는 마13:35절에 인용된다.

시78:24은 요6:31절에 인용된다.

사28:16은 롬9:33절에 인용된다.

시110:1은 고전15:25절에 인용된다.

시116:10절은 고후4:13절에 인용된다.

창13:15절은 갈3:16절에서 인용된다.

(2) 구별 요소: 장소, 시간 사람을 구분하고 가리키고 분명히 함, 예를 들면 미가5:2을 마2:6절에서 인용한 것과 같다.

(3) 성령의 본래 의도나 의미에 한 구절로 제한시키는 것.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신6:13절을 마4:10에서

사29:13절을 마15:8에서

창2:24절을 마19:5절에서

사59:20절을 롬11:26절에서

(4) 모형이 성취와 관련되고 일반이 특별과 관련되고 악이 선과 관련을 갖는 적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보자.

요나1:17절이 마12:40절에서

이사야61:1절을 눅4:18절에서

시22:18절을 요19:28절에서

출12:46절을 요19:33절에서

시69:25절을 행1:20절에서

(5) * 를 위하여 어떤 것은 생략한다. 생략법은 그 말이 그 문제에 적절하지 못할 때 일어난다. 이것의 예는 스가랴 9:9절을 마21:5절에서 사용한 경우이다.

2, 비교의 두 번째 종류는 한 문맥을 다른 문맥과 비교함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유사하기도하고 다를 수도 있다. 유사한 것은 어떤 점에서 구절론이나 언어의 수법이나 그 의미에 있어서 서로 일치한다.

구절론과 일치하는 귀절은 다음과 같다.

창28:12과 요1:51

창3:15과 롬16:20

창6:21과 엡5:2

헬라어 히브리어 콘커던스는 이런 종류의 예를 추적하는데 매우 도움을 준다.

의미상 일치하는 곳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이런 주제아래 우리는 일반적인 원리를 특별한 예화와 서로 비교해야한다. 예를 들면

잠언28:13절과 시32:3,4

삼하15:25절과 벧전5:6

이와 같은 유사 귀절이 많다. 서로 같지 않은 구절은 구절론이나 의미상에 있어서 서로 간에 일치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이와 같다.

로마서3:28과 야고보서2:24

왕상 9:28절과 대하8:18

행7:14절과 창46:27

행7:16절과 창48:22

속11:13절과 마27:9

5. 성경해석의 원리

성경은 지배되는 성격에 따라 해석되어야한다. 이것은 유추적이고 평이하게, 신비스럽고 그리고 어둡게 분류되어질 수 있다.

유추적인 부분은 믿음의 유추와 일관됨으로 그 의미를 분명히 해야한다. 여기서 이런 법칙이 따른다. 즉, 만일 말의 자연스러운 의미가 그 구절과 일치한다면 그 자연적 의미는 적절한 해석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행10:43) 이

본문의 의미는 예수그리스도가 그를 믿는 자에게 의와 영생을 주신다는 것이 분명한 뜻이다. 우리는 그것이 믿음의 유추와 일치하고 성경과 일치하기 때문에 직접 그 해석을 받아드릴 수 있다.

우리는 믿음, 생활, 구원에 필요한 것과 관련된 모든 구절이나 교훈은 분명한 성경에서 진술되어져야하는 것을 깨달아야한다.

비밀스럽거나 숨겨진 구절은 다른 부분이나 모호한 부분을 가리킨다. 그들을 해석하기 위하여 이런 법칙과 이런 지침을 따라야 한다. 만일 말의 자연적 의미가 믿음의 유추와 성경의 분명한 부분과 불일치하다면 유사하거나 상이한 부분, 그 구절의 상황이나 말, 토론되어지는 것의 성격과 일치할 때 바른 해석이 된다.

이런 원리의 중요한 예가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고전11:24)를 해석하는 것과 관련된다. 여러 가지 해석이 이 말씀에 대하여 주어졌는데 즉, 성찬의 떡은 회심 후 그것을 나눌 때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견해(로마 개톨릭의 견해)나 혹은 그리스도의 몸이 떡 안에, 떡 아래, 그리고 떡과 함께 한다는 견해(루터 견해)가 있다. 그러나 양 견해 상, 이런 말을 설명하는 것은 근본적인 믿음의 원리와 맞지 않는다. 이는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리스도가 부재하는 몸을 기념하는 성례의 성격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해석이 주어져야만 한다.

다른 해석은 이 문맥에서 떡이란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서 * 로서 알려진 언어의 상징이 채용되었는데 한 일의 이름은 그것과 관련된 어떤 것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음 이유 때문에 적절한 해석이다.

무엇보다 먼저 그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믿음의 유추와 일치한다.

1. “그는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가 공간적으로 땅에서 하늘로 보이게 올라가셨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의 몸은 성찬에서 입으로 받아드릴 수 없고 신령한 의미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2. 그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그리스도는 하나의 특별한 장소를 자리 잡고 할례 받은 길고 넓고 건강한 자연스러운 참된 몸을 가지셨다. 만일 이것이 그렇다면 성찬 떡은 그의 실제적인 몸이 될 수 없고 그것의 상징이요 보증임이 틀림없다.

둘째로 이 해석은 그 구절에 묘사된 할례와 일관성이 있다. (고전11:23-26)

1. “그가 취하사 떡을 떼사” 그것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있던 그리스도가 그의 손으로 자신의 몸을 취하여 떼어 주셨을리 만무다! 그러므로 떡은 상징이나 보증 그 이상의 것이 아니다.

2. “너희를 위하여 버리신” 떡은 우리를 위해 주어질 수 없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떡은 몸이 아니고 상징이며 하나의 싸인이다.

3. “이 잔은 새 언약이니라” 문자적인 것이 아니고 환유(metonymy)이다. 그렇다면 이 환유를 “이것이 나의 몸이라”는 말씀에 사용되지 못할 이유란 없다.

4. 그리스도 자신이 몸을 먹은 것으로 되는데 그는 자기 몸을 먹지 않으셨다.

5.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말은 그리스도인안에 실제로 공존하지 않고 영적으로 마음의 믿음으로 임재하심을 가리킨다.

6. “그가 오시기까지” 이 말은 그리스도가 그의 몸으로 부재할 것을 가리킨다.

7. 그리스도는 몸의 형태로 있거나 떡 안에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이것(즉 이 떡)이 나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셋째로 이 해석은 싸인과 의미간의 적절한 관계와 유사성이 있음이 틀림없는 성례의 성격과 일관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떡이 문자적으로 몸이라면 불가능하다.

넷째로 이 해석은 다른 성경적 용법과 일관성이 있다. (예: 창17:10,11, 고전10:4, 롬4:11, 출12:11 행22:16 요6:35 고전10:16)

다섯째로 그것은 논리적으로 합당하다. 본래 다른 것들은(떡과 몸처럼) 말의 상징이외에 이런 방법으로 명시될 수 없다.

여섯째로 이 해석은 일상 언어에 적합하다. 고대 세계의 속간(fasces) (황제 앞에 들고 다니는 막대 뭉치)은 국가 상징으로서, 왕국의 홀, 평화의 가운, 승리의 월계관으로 사용되었다. 떡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하는 것은 이런 말과 유사하다.

성경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많은 적용이 이런 해석의 법칙을 따른다.

적용

1. 경우에 따라서 믿음의 유추와 문맥의 상황이나 용어와 일관성이 있는 본문에서 부족한 말을 공급한다는 것이 적절하다.

이 예는 출애굽기 4:25, 19:4, 상하21:16 눅13:9 고전9:25절에서 발견된다.

2. 만일 본문의 다른 서명이 한 명사(이름)를 다른 것으로 바꾸려 할 때 이것은 말의 상징이 채용되었음을 가리킨다. 어떤 일반적 원리가 다음과 같이 도움을 줄 것이다.

(1) 의인화는 언어의 비유적 용법인데 여기에는 인간을 위해 적절한 것이 그리스도를

묘사하는데 사용되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영혼"이란 그의 생명과 본질을 가리킨다. "내 마음이 이같이 나라에 보수하지 않게느냐?"(렘5:29 제네바 역) "머리"는 그의 우수성을 가리키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고전11:3) 하나님의 '얼굴'은 그의 은혜와 그의 분노를 언급한다.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매 내가 근심하였나이다."(시30:7)."여호와와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시34:16) 보통 그의 눈과 관련된 용어는 그의 은혜와 섭리를 가리킨다. "여호와와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시34:15) 그의 "눈동자"는 그를 특별히 사랑하는 어떤 것을 의미한다.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속2:8) 그의 귀와 관련된 것은 보통 우리의 기도를 그가 들으신다는 의미를 가리킨다. 같은 방법으로서 그의 코는 그의 분노를, 그의 손은 그의 능력과 보호를, 그의 팔은 그의 능력과 참으심을, 그의 오른손은 최고 권위를, 그의 손가락은 덕을, 그의 발은 통치와 능력을 (예시110:1), 그의 냄새 맡음은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창8:21)에서와 같이 어떤 것을 수납하심을 가리킨다. 회개는 하나님이 수행하신 일들과 활동으로 일어나는 변화 때문에 사용되었다.

(2) 성례적 언어 혹은, 더 적절한 성례적 환유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과 반대의 것을 사용한 싸인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것의 상징인 나무를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할레란 언약이나 언약의 싸인으로 불리운다. (창17:10,11)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멈추게하고 (그리고 그가 이삭대신 수풀에 걸린 염소를 발견한 것) 이삭을 희생으로 드린 모리아 산을 "여호와께서 예비하시리라"는 의미의 "여호와 이레"라고 부른다. 그 장소는 여호와께서 그렇게 행하는 싸인이다. (창22:14)

야곱이 밤중에 하늘에 닿은 사다리의 꿈을 꾸고 베게로 사용된 그 돌은 “하나님의 집” 곧 베엘이라 불렀다(창28:22) 그 싸인은 그것이 일하는 것과 일치한다. 마찬가지로 유월절 양은 넘어간 양이다.(출12:) 제단은 “여호와와 나의 깃발”(출17:15)이라고 부른다. 예루살렘은 “주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의미이고(겔48:35) 제사장은 속죄를 행한다는 의미이다(레16:)

신약에서 그리스도는 어린양이라 일컬린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요1:29) 유월절 양은 그리스도로 일컬린다.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고전5:7) 같은 구절에서 크리스찬은 “누룩 없는”것으로 표현된다. 그리스도는 속죄물(hilasterion) 혹은 언약궤 뚜껑(롬3:25)으로 일컬린다. 크리스찬은 떡이요(고전10:17) 반석은 그리스도로 일컬린다(10:4). 같은 방법으로 세례는 새로운 출생의 씻음을 의미하고(딤후3:5) 컵은 새로운 언약을 가리키며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킨다.(고전11:24-25) 이런 경우에 그 표징은 상징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그런 싸인이 나타내는 실재로 인하여 세워진 상징을 채용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3)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유물 전달이라고 불리우는 (그의 인성에 부합된 것이 그의 신성 때문이다)것은 제유(synecdoche)다. 즉 전체가 부분을 혹은 반대의 것을 세워주는 말의 상징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성과 신성이 연합을 통하여 엄격히 말하는 것은 그의 양성 중 오직 하나에 속한 것이 전 인격에 대해서 말하여진다. 여기 몇 가지 예를 제시한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행20:28).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요3:13)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박지 아니하셨으리라”(고전2:8)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아브라함 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요8:58) “예수는 그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눅2:52)

이런 성품의 전이는 오직 추상이 아니라 오직 구체적으로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나는 그 온전한 인격이란 하나님이며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즉 추상적으로 두 속성은 신성과 인성을 가리킨다.

(4) 그가 악에 참여하는 하나님에 관해 어떤 것을 말할 때 그의 허용하심으로 이해되어야한다. 이것은 구약에서도 공통적이다. “저희가 오히려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크게 설만하게 행하였나이다.” (느9:37)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사탄한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으로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리며 함께 하셨나니” (사19:14)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출11:10)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의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붙이시려고 그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 마음을 강팍케 하셨음이라 오늘날과 같으니라”(신2:30)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로 저주 받은 자가 되게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대로 진멸하려하심이었던더라.”(수11:20) “사란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니라”(삼상2:25)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대하22:7 제네바역) “또 저희 마음을 변하여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 종들에게 교활히 행하게 하였도다.” (시105:25)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하였음이어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임이라.”(겔14:9)

그러나 신약에서도 그런 예가 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살후2:11)

(5) 또, 그들이 이미 끝난 것처럼 설명하는 어떤 일이 있다. 사실상 그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이런 말은 벌써 그들이 시작했고 예상된 성취임을 의미를 가리킨다.(예, 창5:32, 11:26, 왕상6:2, 37 시119:8)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누가복음1:6과 빌립보서3:12, 15절을 이런 종류의 진술로 이해 될 수 있다.

(6) 특별한 죄를 명칭으로 부르는 도덕적인 계명과 율법은 그 원인과 경우를 포함하는 동일한 종류의 죄뿐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죄를 의미한다. 그들은 역시 정반대의 덕을 가리킨다. 이것은 산상 보훈에서 그리스도께서 도덕법을 어떻게 설명한 이유이다. (마5:21-48을 보라) 요한은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였느니라(요일3:15)”는 말과 동일한 원리임을 증명한다.

(7) 위협과 약속은 일반적으로 어떤 조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한다. 그들의 외적사역은 믿음과 회개가 그들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에 달려있다. 특히 그것은 어떤 구절에서는 사실이다.(비록 징계와 십자가가 이런 법의 예외일지라도 예.

겔33:14, 15 욥3:4 계21:18) 그 사건 자체에서 나오는 것으로부터 위협과 약속이 조건적으로 이해되어져야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예, 렘18:9,10) 비슷한 예가 이사야38:1과 창세기20:3절에 나온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의 외적인 역사가 포함되며 하나님의 의미 있는 뜻과 그의 선한 즐거움의 뜻 사이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그려진 구분을 포함한다. 그의 선하신 즐거운 뜻이란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와 다스리심과 그의 아들을 보내심처럼 조건 없이 절대적으로 단순히 어떤 일을 행하심을 의미한다. 그의 뜻을 나타내심은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하여 그것의 조건으로 그가 어떤 일을 원하심을 가리킨다. 그 손 안에 있는 한 그 조건은 하나님 뜻의 임재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 분이 그렇게 원하신다고 말할 수 있다.

(8) 신성의 한 인격에 사용된 최상의 절대적 언어는 다른 위격과 위배되지 않는다. 그것은 한 위격과 그 이상의 위격을 가진 참 하나님이 반대를 당하는 피조물과 거짓 신들을 부인한다. 그래서 예수는 아버지를 모든 거짓 신과 반대되는 유일한 참 하나님이라 부른다.(요17:3) 더욱이 마가복음13:27, 로마서16:27, 디모데 전서1:17 요한복음10:29절에서 분명한 예가 발견된다.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는 말은 삼위일체의 다른 위격보다 더 위대함을 의미하며 모든 피조물보다 더 위대함을 가리킨다. 삼위일체의 모든 외적사역과 모든 신적 속성은 포괄적으로 이해되어져야한다. 그들은 인격의 어떤 예외없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9)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홀로 고려될 때 삼위일체의 세 인격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란 말이 삼위일체의 다른 격과 함께 사용될 때 그것은 아버지를 의미한다.(예, 고후13:13)

(10) 일반적인 말은 특별한 의미와 그 반대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모든”이란 말은 “많은”이런 말로 많은 이란 말은 “모든”이란 말을 의미할지도 모른다.(어거스틴이 분명히 말한 것처럼) 우리는 성경에서 이것을 자주 본다.(예: 창33:11, 출9:6 신28:64, 왕상12:18 렘8:6 26:9 마4:23, 21:26 요14:13 고전6:12 빌2:21) “아무 것도”란 말은 “작은(little) 혹은 “적은”을 의미할 수 있다.(렘8:6, 고전2:8) “항상”이란 말은 “가끔”, “긴”이란 의미이다(잠13:10, 눅18:1, 24:53, 요18:29) “영원한”이란 말은 문맥에 적합하다면 “긴 시간”을 의미한다.(예: 창17:8, fp25:46 신15:17 고전15:2 사34:6 단2:4 렘25:9) “모든 곳”이란 말은 “여기와 거기”를 의미할 수 있다(막16:20, 행17:30) 부정은 그 의미 안에서 하나의 특별한 문제로 제한된다.(예: 시7:4 요9:3) “아니”란 “거의 없다”(selom, scarcely, hardly)를 뜻할 수도 있다.(왕상15:5 눅2:37)

3. 문법적 수사적인 말의 내용들은 의미의 다양한 위양스를 가리킨다.

엘리피스(하나 혹은 그 이상의 말이 부족할 때)는 장엄함을 가리킨다. 혹은 깊은 감정의 표현일 수 있다(창3:22, 11:4, 출22:20,23, 대상4:10, 사6:3 행5:39).

미래에 일어날 것을 표현하는데 사용하는 완전 시제의 상호 변경은 일어나는 것의 확실성을 가리킨다.(창20:3, 사9:6, 21:9)

중복어(Pleonasm)(한 말이나 여러 말의 반복)은 절의 단순한 반복에서 (1) 보통 말 이상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힘과 강조를 말한다(시133:2, 눅6:46) (2) 무리들(창32:16

욥3:14) (3) 배분(레17:3, 대상26:13 대하19:5) (4) 다양성(시12:2 잠20:10)을 가리킨다.

중복어의 다른 형태는 한 명사가 다른 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 때 일어난다. 단순한 것 안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확실성을 논의한다.(출31:15 미2:4) 복수에서 그것은 아가서와 종들의 종에서처럼 탁월함을 나타낸다.(참고 시136:2, 전1:2)

중복어는 형용사의 경우에(가끔 명사의 경우)의 중복어는 고시나 증가를 의미한다(출34:6, 잠6:10 사6:3 렘7:4 22:29 24:3 겔21:28) 동사의 경우, 이 둘은 언어를 더욱 더 강조하고 중요시하거나 그 밖에 것은 간절성, 확실성과 신속성을 가리킨다.(창2:7, 46:4, 출13:17 삼하15:30 왕하5:11 8:10 시50:21 109:10 잠27:23 사6:9 50:2, 55:2 56:3 렘12:16 23:39)

종속절인 경우의 중복어는 열정을 가리킨다(겔13:10) 이중적인 종속절은 부정의 힘을 증가시킨다.(예 출14:11, 막13:14)

전체 문장에서의 중복어는 먼저, 분배를 의미하고(겔46:21) 둘째로 강조(출12:50 시124:1, 145:18)를 셋째로 단 말로서의 한 문장의 반복은 명료성을 뜻한다.(왕하2:13 시6:9, 10 사3:9 요1:3)

언어의 모든 그림은 기능상 강조적이다. 그것은 말의 의미를 확장시킨다. 그러나 문자적, 심미적 즐거움을 더하여 그들은 믿음을 양육하는데 도움을 준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가 크리스찬을 위하여 혹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높여 질 때이다.(마25:35 행9:4) 확실히 이것은 신실한 영혼의 위로를 가져오고 믿음을 성장케 한다.

풍자(의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말한 것의 반대일 경우 가끔 우롱의 문맥으로

진술된다)는 가끔 죄에 대한 책망을 의미한다(삿10:14 왕상18:27, 22:15 막7:9 고전4:8)

날말과 음의 반복을 포함한 언어의 상징은 강조법으로 사용되었다(시67:5,6 사48:11, 요1:51) 모든 단일 절에 반복을 사용한 시편136편에 이것의 놀라운 예가 드러난다.

질문(question)은 여러 가지 것을 가리킨다. 즉,, 강한 긍정(예 창4:7,37:13 수1:9, 왕상20:27 막12:24 요4:35 6:7 10:13), 부정(예, 창18:4, 마12:26 롬3:3), 금지(ka하2:22, 시79:10), 예찬, 연민, 불평, 및 거짓의 발견과 같은 감정의 이입(시8:10, 22:1, 사1:21)이 해당된다. 양보는 부정과 책망을 가리킨다(고후12:16,17처럼).

4. 성경 안의 분명한 모순은 그 단어가 같거나, 혹은 다른 면으로 다루어지거나, 혹은 여러 관점에서나, 혹은 다른 시간을 가진 구조일지라도 그 귀절이 다른 것으로 취급될 때 가끔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예는 시편7:8(나의 의를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이사야64:6('우리의 모든 의가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가 포함된다. 이 두 진술의 분명한 모순은 우리가 다른 관심들 즉, 어떤 경우는 그 원인의 의와 다른 경우에는 개인의 의와 함께 취급된 것을 알 때 해결된다.

마태복음10:9,10('너희 전대에 은이나 금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와 마가복음6:8,9절('지팡이 외에는 ... 신만 신고 ...말라 하시고'))은 우리에게 다른 예를 제공한다. 여기서 본문은 마가의 경우 여행자의 여행을 계속하도록 편안케 하는 지팡이의 가치를 말한다면(창세기32:10에 야곱이 사용한 것처럼 마태복음의 내용은 막대기를 그것을 짊어진 자의 짐으로 말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서로 서로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다. 또 마태가 언급한 신발은 여행을 위해 주의깊이 만든 새 신발이다. 반대로 마가의 신발은 새 것이 아니지만 매일 신어야하는 종류의 신발이다.

여러 상태와 제제는 성경 구절을 조화시킴으로서 관찰되어야한다.

(i) 가끔 성경기자들은 자신들이 기록한 대와 장소의 관습에 의해서 과거의 장소와 사람에 대해서 말한다. 이런 예는 창세기12:8절에 “거기서 벧엘 동편 산으로 옮겨 거기서 장막을 치니”라고 나온다. 그 장소를 모세 시대에는 벧엘이라 불렀고 아브라함 때에는 루스로 불렀다(창28:19). 창13:1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 남쪽으로 내려갔다”고 나온다. 여기서의 “남쪽”은 애굽에서의 남쪽이 아니고 모세가 그것을 기록할 시기의 남쪽이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서 감옥에서 설교했다(벧전3:19)는 것을 본다. 그것은 노아가 살아있을 때를 말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그의 편지를 기록할 때에 감옥에 있었다는 말이다. 족장의 문맥에서 하나님은 시105:15절에서 말하기를 “기름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라***”고 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경험은 다윗이 살던 시대의 의식에 의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족장들은 외적으로 기름을 받은 일이 없다.

(ii) 문자적 상징주의에 의해 표시된 풍유와 구절들은문맥의 범위와 초점에 이해서 설명되어야한다. 그래서 크리스소스톰은 마태복음 8장에서 “비유들이 많은 불합리를 따르지 않도록 문자대로 설명되지 말아야한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어거스틴은 시편 8편과 관련시켜 말하기를 “모든 풍유에서 이런 법칙에 적용되어하며 직유로 말한 현 장소의 목적에 의해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iii) 그 성경안의 동일한 장소와 동일한 사람은 두 다른 이름을 가진 것 일수 있다. 기드온은 여룹바알(삿6:32)과 여룹베섹(삼하11:21)으로 불리웠다. 그때는 동일한 이름이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 그래서 솔로몬(룻4:21)은 살마(솔로몬)(대하2:11)로 나타난다. 반면에 다른 이름과 장소는 같은 이름일 수도 있다. 이것의 한 예는 마태복음이 시작하는 족보에서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스알디엘과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마1:11,12)라고 발견된다. 여고냐라는 이름은 족보가 시작되어 셋째 그룹으로 시작하는 3개의 14대의 둘째 것으로 마친다. 만일 이것이 동일한 개인이면 둘째, 셋째그룹에 13명만이 나와야한다. 그러나 두 사람이 여고냐로 아버지와 아들로 불리워 질 때 그 문제는 해결된다.

숙곳은 성경의 3가지 다른 이름이다. 첫 번은 애굽에 있고(출12:37), 둘째 것은 갓 지파의 땅에(수13:27), 셋째 것은 므낫새 지파의 땅에 있다(왕상7:46).

(iv) 간혹 성경에는 악한 통치자의 죄악된 생활 스타일로 그의 이름이나 통치한 연도가 많이 생략될 수가 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지 이년이라”(삼상13:1) 즉 라이라(Lyra)가 잘 말한 것처럼 (율법이나 공평에 의하여) 대 주레(de jure)이다. 반면에 그는 더 오래 통치하였다. 우리는 마태복음1:8절에서 또 다른 예를 보기를 “요람이 웃시야를 낳고”란 말을 본다. 여기서 세 왕,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시야가 악하였기에 기록이 빠져버렸다.

(v) 연대기간은 완전한 형태로 혹은 불완전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들은 포함되기도 하고 빼버리기도 하였다. 열왕기상15:25절과 열왕기상15:28절에 이런 실예가 있다. 아사 제 2년에 통치하기 시작한 나답은 비록 바아사가 아사 통치 제3년에 그를 계승하였다

해도 2년을 통치했다고 말할 수 있다. 분명히 마지막 왕의 통치의 마지막 해는 그의 죽음으로 단축되었기에 완전한 해를 거의 채우지 못했다. (여기와 같이) 마지막 해는 한 달이나 그 이상의 해를 계승하지 못한다. 그 해의 남은 부분들은 어떤 계승자의 완전한 해로서 계산할 수도 있다.

만일 우리가 마태복음17:1을 누가복음9:28을 서로 비교한다면 연대기의 분명한 모순을 분명히 발견한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누가가 그들의 양편에 대하여 부분적인 날들을 포함시키는 완전한 날을 마태가 셈하였음을 인정한다면 해결된다. 그래서 그런 표현에도 불구하고 마태의 6일과 누가의 약8일간에는 실제적인 모순이 없다. 이것은 완전한 수를 사용하는 것을 더 좋아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이유들이 있을 수 있다. 어거스틴은 출애굽기에서 말하기를 “부족하거나 혹은 *한 시간을 완전한 수를 만듦으로 계산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향촌들과 아로엘과 그 향촌들과 아르는 연안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한지 삼백 년이어늘 ...”(삿11:26)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발한 때부터 이 연대는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광야의 방황 40년

여호수아의 인도 17년

웃니엘의 인도 40면

에훗과 삼갈의 인도 80년

바락의 인도 40년

기드온의 인도 40년

아비멜렉의 인도 3년

돌라의 인도 23년

야일의 인도 22년

총 305년(300년이 아님)이다. 나머지 5년이 언급되지 않은 이유는 어림수로 이해하기가 좋기 때문이다.

또, 단지 위엄 때문에 사용될 수도 있다 “이 날에 베냐민의 칼을 빼는 자의 옆드려진 것이 모두 이만 오천이니 다 용사더라”(삿20:46) 여기서(사사기 20:35절이 한 눈에 보이듯이) 100명의 베냐민이 포함되지 않았다.

(vi) 구약역사의 이야기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더 고려할 것은 한 왕이 전쟁과 나이가 늙거나 어떤 병 때문에 그 나라에서의 그의 역할이 힘들어질 때, 그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의 아들을 대신 왕으로 임명했다. 공동으로 통치하는 기간은 아버지와 아들의 통치기간의 계산은 이 둘이 합쳐진 통치기간일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개인 통치 기간만이 계수 될 수 있었다.

이것은 열왕기하1:17과 열왕기하3:1절간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 여호사밧의 통치 17년째에 그는 아람과 싸우는 아합왕을 돕기로 결정했고 그의 아들을 요람을 부왕으로 임명했다. 여호사밧의 통치18년째에 (그의 아들 중 둘째) 아합의 아들 요람이 통치했다. 그후 아합의 아들 요람 5년째에 나이가 많은 여호사밧은 그의 나라를 요람에게 양도했고 그는 8년간을 다스린 것으로 보여진다. 그의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4년, 그의 아버지가 죽은 이후, 자신이 4년을 다스린 것으로 나타난다.

또 다른 예가 열왕기하 15:30절(요담이 20년을 통치한다)을 열왕기하15:33절(단지

16년을 통치한 것으로 나온다)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난관은 쉽게 해결된다. 요담은 그의 아버지 웃시야의 죽음 이후 자신이 16년 동안을 다스렸으나 그의 아버지와 함께 다스린 4년(도합20년)이 더해진 것은 웃시야가 문둥이가 될 때 그의 아버지의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이다.

(vii) 고대근동에서 하루를 인위적으로 12등분하기도 하고(일반적으로 태양력이라고 부른다. 요11:9참조) 어느 지점이 시작하는 시간의 숫자로 확정하는 사분법으로 구분된다. 이것은 “제 3시”에 예수님이 못박혔다는 마가복음15:25과 빌라도가 예수를 유대인에게 넘길 때에 “제 6시경”이라고 하는 요한복음19:14를 서로 조화시킬 수 있다. 이 두 숫자는 다른 구조에 속한 것이다. 한 날의 시간을 계산하는 다른 방법이 존재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제 6시에 골고다에 달리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제 3시에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할 수 있다.

(viii) 더 작은 수는 더 크고 완전한 수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그 땅에 태평한지 사십년에 그나스의 아들 웃니엘이 죽었더라.”(삿3:11) 이 그림은 아람의 8년 속박과같이 여호수아의 죽음에서 웃니엘의 죽음까지 취급되는 수를 포함한다. “그 땅이 팔십년 동안 태평하였더라.”(삿3:30) 여기에 웃니엘의 죽음부터 에후와 삼갈의 해를 둘다 포함시켜야한다. 왜냐하면 에후는 생애이상되는 80년동안 사사가 될수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예가 사사기5:31, 8:28, 9:22, 10:2,3 그리고 11:26절에 일어난다. 광야 40년방황생활이 300년의 그림속에 포함시켜야한다는 것이다.

(ix) 아들신분은 자연적이면서 합법적일 수 있다. 자연적 양자는 족보에 따른 것이라면 합법적 아들은 교육과 양육에 의해 그리고 왕국 계승에 의한 양자에 의한

것으로 속량법에 의한 수혼 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신25:5절을 보라)

5. 한 구절의 자연적 의미가 이런 원리의 도움으로 결정될 때 문맥에 가장 적합한 의미는 그 의미의 범주에 들어있는 어떤 말을 추측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히브리어 “와우(그리고)”는 문맥에 따라 “그러나”, “왜냐하면”, “정말로”, “즉”, “그 이유로”, “그래서”와 같은 유사한 용어로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다.

또 히브리어 바룩은 축복하고 저주하는 반대적 개념을 가리킬 수 있다.(욥1:5, 왕상21:10, 11:2, 9) 그리고 창세기4:26절에 나온 찰랄은 “더러운”(가끔 그렇게 하지만)의 뜻이 아니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시작하다”는 뜻이다.

(1) 더럽다는 뜻을 말할 때 그것을 다스리는 명사와 연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과라라는 동사의 부정문이 직접 따른다. (2) 모세는 홍수이유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더러워졌다고 말하지 않는다. 도리어 하나님 백성가운데 유행하다면 분명히 그렇게 말했다.

6. 우리 영어 성경에 가끔 관주에 그 구절의 여러 사본들에 나온 헬라어 히브리어 말이 나온다. 정확히 읽는 것은 문법구조와 일치하며 다른 사본과 같아야 한다 (2) 구절의 진의를 밝히는 것과 믿음의 유추와 일치하는 문맥이어야 한다.

나는 린다누스(로마캐톨릭을 따르는)가 논의한 것처럼 유대인의 그릇된 행동을 통해 히브리어와 헬라어 본문의 사본들이 훼손당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단지 해석의 원리로서 언급한다. 원문사본을 만드는 사람들의 역할에 기술 부족과 소홀함과

지나침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이 여과를 거쳐 정확히 읽게 하려고 이것을 언급할 뿐이다.

예를 들면 히브리 본문의 대부분의 사본에 시편22:16절은 “사자 같은 나의 수족”이란 뜻으로 카아리”란 말을 쓴다. 그러나 히브리 어떤 사본에는 “그들이 나의 수족을 찢다(혹은 찢었다)는 뜻으로 카아루라고 했다. 우리가 채용한 규칙은 후자를 따르게 하는 이유는 그것이 (1) 문법적 구조와 일치하고 (2) 시편의 상황과 일치하고 (3)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고대 사본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6.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취급함

그 동안 우리는 성경해석에 대하여 생각해와다. 지금 우리는 그것을 바로 "자르고(cutting)" "나누는 것(dividing)"을 생각하려 한다. 바로 자르는 것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즉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딤후2:15)

여기서 자르는 개념은 레위인들이 희생을 드릴 짐승의 고기를 주의 깊이 자르는 것과 같은 활동에서 나온 비유적 언어이다. 메시아가 말씀하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사50:4)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런 기술을 가리킨다.

이것은 두 요소인 (i) 분해 혹은, 구분 (ii) 적용으로 이루어진다.

분해(Resolution)

분해는 베 짜는 사람의 천이 잘 짜여진 것처럼 여러 교훈으로 그 구절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다. 아볼로는 이것을 행하는데 높은 기술을 가졌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일러라."(행18:28)

가끔 교훈은 그 구절에서 분명히 진술된다. 이것은 이미 구약이 신약의 참조 구절에서 설명되었다. 즉,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가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롬3:9-11). 다른 예가 사도행전 2:24-27절에 나온다.

다른 경우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은 한 교훈은 하나의 의미 혹은 다른 의미에서 기록된 것에 나타나기 때문에 본문에서 정확히 끌어낼 수 있다. 이것이 성경자체에서 어떻게 행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예들이 있다.

성경본문	본문에서 나온 적용
------	------------

예 1

요한복음10:34:

요10:35: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 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 이라 하셨거든 36: 하물며 아버지 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 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람하다 하느뇨?
--	--

예 2

고린도전서9:9 모세의 율법에 고전9:4우리가 먹고 마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 시는 권이 없겠느냐
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나

예 3

갈라디아3:10 무릇 율법 행 갈3:9 그러므로 믿음
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나니 기록된바 누구든지 율법 는 믿음이 있는 아브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라함과 함께 복을 받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느니라
아래 있는 하였음이라

예4

갈3:11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
니라

갈3:11또 하나님 앞에서 아

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

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

예5

히8:8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불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히8:13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매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교훈들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윤리적, 경영적, 정치적, 보편적 혹은, 특정적 예는
그 자체의 국면에서 일반 법칙의 힘을 갖는다. 조상들의 예는 바울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고전10:11)라고 가르친대로 우리의 모본이 된다. 그것은 좋은 모든
종들의 선물이란 원리이다. 마치 그것은 사물의 일반적인 종들이 특별한 것 앞에
생각되는 보이는 개념으로 이루어진 법칙과 같다.

예6

롬9:7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10 이분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롬9:8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예7

롬4:18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으니 21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2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롬4:23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나 그 교훈들은 그것이 그렇게 하기에, 적절하고 유효할 때만이 그 구절에서
연역되어야한다. 그들은 성경의 참된 의미에서 추론되어야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성경의 어디서 어떤 교훈을 끌어내는 것을 끝낼 것이다.

이 잘못된 경우는 잠 8:22절을 취급할 때 생길 수 있다.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의
지혜는 그 자신에 대해서 말한다. 70 인역(구약의 헬라어 번역)에 의하면 그 구절은
“주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로 되어있다. 이 번역으로부터 아리안파들은 아들이
피조되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히브리어 본문은 “여호와께서 나를
가지셨다”(히브리어 동사는 콰나이다)로 되어있다. 아버지가 아들을 소유했기에 그는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낳아졌고 아버지는 그 아들 안에 계시며 아들은 아버지 안에 계신다. 그리고 한 아들이 아담에게 태어날 때 그는 “여호와께 온 한 아들을 소유했다”(창4:1; 여기서 히브리어 동사는 콰나이다)로 되어있다. 이 오류는 서기관들이 헬라어 본문을 기록할 때 일어난 것 같다.(사고 혹은, 고의로)

같은 방법으로 어거스틴은 시편39:10절을 이런 본문으로 읽으면서 주석한다. “그대가 나를 만드셨기에 나는 나의 평안을 가졌나이다.” 그는 말하게 하신 입을 주신 그분이 그의 말을 붙들어야한다는 놀라운 일을 잘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나를”이란 말은 히브리어 본문이나 헬라어 본문에도 없다. 시편72:14절의 그의 주석에서 그는 이자를 받기 위해 돈을 빌려는 것에 대한 질문을 논하고 이것이 죄임을 증거한다. 그러나 본문은 이런 말이 전혀 없다. 본문에는 “그는 압제와 공포에서 그들의 생명을 구속할 것이며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역시 유추 혹은 풍유를 발전시키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 이들은 서로 같은 것들로부터 끌어낸 논증들이다. 바울은 그들을 가끔 사용했다(예, 고전9:9). 그러나 그들은 다음의 경고를 채용했다.

1. 그들은 삼가 하면서 신실하게 사용되어야한다.
2. 그들은 지나친 추론을 하지 말고 그 말에 적절해야한다.
3. 그들은 간단히 언급되어야한다.
4. 실제적 가르침이 교리의 대지를 증명하려 해선 안된다.

적절한 해석에 의해 본문으로부터 나온 교리의 어떤 것은 그 자체의 권위를 믿어야만 한다. 이것은 그것을 믿기에 충분한 근거가 된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 이는 성경으로써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일러라”(행18:24-,28) 이것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인간의 증거나 철학이나 교부들에게 근거를 두지 말아야 한다. 어거스틴은 시편66편을 “만일 내가 망한다면 어떤 사람도 듣지 않게 하라. 그리스도가 말한다면 듣지 않는 자는 화가 있도다”로 주석한다. 다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일과 사람이 말하는 바를 듣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여호와가 말씀하는 것을 듣게 하라” 그러나 이런 예외가 있다. 만일 그들이 청중의 양심을 확신하지 못한다면”이란 예외가 있다. 그것은 바울이 아라트스에게 증거를 할 때 사용한 방법이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행17:28,29) 마찬가지로 그는 Menander의 말을 인용하기를 “속이지 말라: 악한 동무는 선한 행실을 썩게 한다”(고전15:33) 또 그는 에피메니데스를 인용한다.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라”(딤후1:12)

그러나 만일 이런 세속적인 저자들이 인용되었다면 그것은 절제되어야한다. 사실상 성경적 관례는 이런 예에는 저자들의 이름을 실제로 생략한다.

2. 다른 성경의 몇 곳만이 교훈의 증거가 사용되었고 가끔 아무 사람의 인용도 되지

않았다.

3. 이런 방법으로 그들의 가르침을 설명한 선지자들은 다른 선지자들에 의해서 비판을 받지 않았다 (고전14:32, 37절을 보라)

7. 실용과 적용

적용은 성경에서 이끌고 나온 적절한 교훈을 장소, 시간, 그리고 회중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통제하는 기술이다. 다음과 같은 것이 강해에 대한 성경적 접근방법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겔34:15,16)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유22,23).

적용의 근본 원리는 그 구절이 율법의 진술인지 아니면 복음의 진술인지를 알아야한다. 이는 말씀이 설교될 때 율법과 복음은 달리 적용되기 때문이다. 율법은 죄의 질병을 지적하여 반쪽만을 자극하고 드러낸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치료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행할 것을 가르칠 뿐 아니라 그것을 적용하는 성령의 능력을 갖는다. 우리가 그것으로 중생할 때 우리는 복음을 믿는 것과 그것이 명하는 것을 행하는 능력을 공급받는다. 그러므로 율법이 먼저 가르쳐져야 하고 다음에 복음이 뒤 따라야한다.

율법의 진술은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주어진 영생과 율법을 반대하는 죄와 그들에게 돌아가는 저주에 대한 고유의 완전한 의의 필요성을 가르친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갈3:10) “요한이 마노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론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로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 마다 찍어 불에 던지 우리라.”(마3:7,10) 반대로 복음의 진술은 그리스도와 그의 공로, 선행의 열매를 가져오는 믿음에 대해 말한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3:16)과 같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율법에 속한 많은 진술이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합당하게 이해되어야하며 복음에 의해서 특징지어져야 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눅11:28), “내가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는 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신30:11,14) 성격상 같은 문맥이 모세 안에서의 율법이 바울 안에서의

복음일 수 있다.(롬10:8) '행위 와전하여 여호와와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시119:1,2)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노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요14:21,23)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 라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창6:9) "아브라함의 구십구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저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네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창17:1).

기본적으로 7가지 영적 조건을 유지하면서 만들어진 적용 방법 7가지가 있다.

청중의 범주

1. 불신자들, 무지자, 가르칠 수 없는 사람들. 이들은 먼저 말씀의 교훈을 받도록 준비되어져야한다. 여호사밧이 유다 도시로 레위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을 가르쳐 우상에서 멀리하게 했다.(대하17:9) 이런 준비는 그들의 태도와 위치를 의식하게하기위하여 부분적으로는 그들과 토론하거나 납득시키는 것이면서 또 다른 부분으로는 그들의 야심이 두려움을 일으켜 가르침을 받도록 죄의 분명한 책망으로 이루어져야한다.(행9:3-5, 16:27-31, 17:17, 17:22-24).

그들이 가르칠 수 있거나 준비된 어떤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는 일반적인 것에 집중된 기본적 용어로 전달되어야한다. (예를 들면 바울이 아덴에서 한 것처럼 행17:30-31) 만일 이런 가르침에 적극적인 응답이 헛되다면 더욱 세밀하고 납득이 될 만한 방법으로 설명되어야한다. 그러나 그들이 가르쳐질 수 없고 구원하기에 실제적 소망이 없다면 그대로 남겨두어야 한다. (잠9:8, 마7:6, 행19:9)

2. 가르칠 수 있으나 무지한 사람들. 우리는 교리로서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야한다.(참고 눅1:4, 행18:25, 26) 교리문답은 질문과 대답의 형태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근본적 가르침에 관한 간단한 설명이다. 이것은 이해와 기억에 도움을 준다. 그러므로 교리문답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근본이요 기초적 원리의 총화이어야 한다.(히5:12)

믿음의 원리는 인간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과 직접 간접으로 관련을 가진 성경적 진리이다. 만일 그것이 부인되고 거절된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소망의 근거가 없는 셈이다. 6가지 중요한 원리 즉, 회개, 믿음, 세례(성례), 안수(말씀사역을 위한 제유), 부활, 마지막 심판이 그것이다.(히6:1-3)

교리문답의 분명한 형태는 그 요소와 기초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한 질문과 대답으로 되어있다. (행8:37, 벰전3:21) 터툴리안이 그것을 말한 것처럼 “영혼은 씻음으로서 청결케 되지 않고 응답함으로서 청결케 된다.”

여기서 ‘우유’와 ‘딱딱한 음식’의 구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범주는 같은 진리와 관계가 있고 그들의 차이는 가르침의 수법과 스타일에 놓여있다. ‘밀크’는 믿음 원리의 간단하고 분명하고 일반적인 설명이다. 즉,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고 삼위이신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해야한다. 우리는 죄 용서를 믿어야한다. 우리가 회개하고 악을 금하고 선을 행하는 때에 언제인지를 가르쳐야한다.

반면에 '딱딱한 음식'이란 믿음 교리의 구체적이고 충분하게 밝혀주는 분명한 통제를 가리킨다. 그것은 이와 같은 성경 가르침인데 즉, 타락전의 인간 상태, 타락, 원죄와 자범죄 인간의 죄책, 자유의지, 삼위일체의 비밀, 그리스도의 양성, 한 인격에서의 결합,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 직무, 의의 비방, 믿음, 은혜, 율법의 용도 등을 주의 깊고 명료하게 전해져야한다. '밀크'는 미숙한 사람이나 지식적으로 약한 어린아이에게 놓여져야 한다. 딱딱한 음식은 더 잘 교훈을 받아드리는 성숙한 사람에게 주어져야한다.(고전3:1-2 히5:13)

3. 지식을 가진면서 겸손할 수 없는 사람. 역시 우리는 바울이 경건한 슬픔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회개의 기초를 알아야할 필요가 있다. (고전7:8-10) 경건한 슬픔은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단순히 죄로 인한 슬픔이다. 이런 애정을 일으키기 위하여 율법의 사역이 필요하다. 이것은 마음속에 실제적 회개의 감정을 낳고 양심의 공포를 낳는다. 비록 이것이 그 자체에 온전하거나 유익을 주지 못하지만 그것은 죄악된 고집을 꺾고 가르칠 수 있는 마음을 준비시키는데 필요한 치료책을 공급한다.

이런 합법적인 슬픔을 일으키기 위하여 겸손치 않은 사람 안에서 분명한 죄를 책망하는 율법의 어떤 선택된 부분이 적절히 사용되어야한다. 한 가지 죄로 부터의 슬픔과 회개는 본질상 모든 죄에 대한 슬픔과 회개를 가리킨다.(시32:5, 행2:23, 8:22)

더욱이 십자가로 고통을 당하거나 외적인 비극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단지 세상적

슬픔만을 가지고 있다면, 즉, 죄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죄의 처벌 때문에 단지 슬퍼한다면 그는 직접적인 위로를 받아서는 안된다. 이런 슬픔은 먼저 경건한 슬픔으로 바뀌어져야한다. 의학적 치료를 생각해보라. 만일 사람의 생명이 코피를 흘려 그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다면 의사들은 그 팔에서 피가 나오게 한다든가 혹은 다른 곳에서 나오게 함으로서 코에서 나오는 피의 흐름을 중단시킬 것이다. 물론 그들의 동기는 죽음의 위험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성령이 구원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일하시도록 이 방법으로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원하고 행하기 시작하기위하여 사람을 갱신시키려고 성령은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경건한 슬픔과 회개를 실제로 참되이 만들어 내신다.

강박한 마음에 대하여 율법은 강조되어져야하고 그 저주는 그 경고로서 분명히 진술되어져야한다. 사람이 그들의 마음에 * 하기 까지 구원을 얻는 난관이 가르쳐져야한다. (마3:7, 19:16, 17, 23:13,33) 그러나 참된 슬픔의 시작이 나타날 때 그들은 복음을 인하여 위로를 받아야한다.

4. 이미 겸손한 사람들. 여기서 우리는 이미 주의깊이 일어난 겸손은 완전하고 온전한지를 주의 깊게 살피거나 혹은 가벼운 빛이나 인위적인 것인지를 살펴야한다. 사람이 적절한 것보다 더 빨리 위로를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그들이 그렇게 행하면 용광로에 던져진 쇠 덩어리가 차가우면 더 단단해지듯이 후에는 더 강퍅하게 될지도 모른다.

여기에 부분적으로 겸손하게 되는 사람을 다루는 어떤 안내서가 있다. 그들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하면서 동시에 복음의 위로를 발견하기 위하여 복음과 함께 율법을 주의 깊게 설명하라.(창3:9-15, 삼하12: 행8:20-23) 나단은 우리에게 좋은 예를 제공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 받은 그는 다윗에게 비유로서 그의 실상을 환기시키고 그가 분명한 회개를 하였을 때 용서받았음을 선언했다.

이런 방법으로서 믿음과 회개와 복음의 위로는 충분히 겸손한 사람에게 가르쳐지고 제공되어야한다.(마9:13, 눅4:18, 행2:37,38)

5. 이미 믿은 사람들. 우리는 이렇게 그들을 가르쳐야한다.

(i) 복음: 칭의, 성화, 견인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

(ii) 율법: 그러나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는 자에게 적용할 때 그들이 회개를 유지하는 새로운 복종의 열매를 어떻게 맺는지를 가르쳐야한다. (롬8:1, 딤후1:9) 여기서 로마서에서의 바울의 가르침은 하나의 모델이다.

(iii) 비록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율법의 저주로 위협을 당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남아있는 죄에 대한 율법의 책망은 여전히 강조되어야한다.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녀가 그릇 행할 때, 두려움을 느끼도록 벌을 주려는 것을 보여주듯이 율법의 저주에 대한 묵상으로서 죄악된 생활로서 하나님의 자비를 무시하는 것을 실망시키고, 겸손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참된 신자들을 자주 꺼려해야한다. 남은 죄를 멸하도록 하기위하여 우리는 항상 율법에 대한 묵상과 복음 안에 머물기 위하여 우리자신의 죄 의식으로 시작해야한다.

6. 타락한 사람들. 어떤 이들은 부분적으로 믿음이나 생활스타일에 있어서 믿음에서 떨어진 자들일 수도 있다.

믿음에 대한 실패는 복음교훈의 지식과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일어난다.

지식에 대한 실패는 이차적이거나 근본적인 교훈에 대한 오류에서 떨어지는 것을 포함한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오류를 반대는 특별한 교리가 설명되어지고 가르쳐져야한다. 우리는 회개의 교훈을 따라서 그들에게 그것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바울이 갈라디아 6:1(참고, 딤후2:25)에서 말한 것처럼 애정으로 대하여야한다.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실패한 것은 절망으로 나가게 한다.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그들의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들의 위험한 원인과 그 상태의 원인을 분석해야한다. 그런 원인의 진단은 개인 고백으로 적절히 행해질 수 있다. (참고 약5:17) 그러나 이 고백을 고난의 도구로 돌리기 위해 억제하는 것은 이 원리에 의해 통제되어야한다.

(i) 그것은 자유롭게 행해져야하고 혼동가운데 이루어져선 안된다. 구원은 그것에 의존되지 않는다.

(ii) 그것은 모든 죄의 고백이 되어선 안되고 양심으로 먹고 그들이 다루지 않았다면 더 큰 영적위험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져야한다.

(iii) 이 고백은 주로 목사들에 의해 행해져야 하지만 교회내의 다른 신실한 자들과

신뢰할만한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이해함으로 이루어져야한다.

사람의 영적 상태의 진단은 그들이 율법아래 있는지 복음아래 있는지의 탐구를 포함한다. 이것을 분명히 하기위하여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기뻐하지 않는 것을 그들에게서 발견하기위하여 조사하며 질문해야한다. 그들은 죄에 대한 죄를 미워하는가? 그것은 구원을 가져온 회개의 기초이다. 둘째,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보아야한다. 이것은 산 믿음의 근거이다.

진단이 완성될 때 그 치료는 복음으로 설명되고 적용되어져야한다. 그것은 이중적이다.

첫째, 여러 복음 진리들이 설명되어지고 그들에게 자주 영향을 미치도록 다음과 같이해야한다.

- (i) 그들의 죄가 용서되었다.
- (ii) 은혜의 약속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그들은 특별한 개인으로 만들어서 특별한 사람으로 취급해선 안된다.
- (iii) 믿는 의지가 믿음 그 자체이다. (시145:19, 계2:16)
- (iv) 죄가 은혜를 철폐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의 소유가 되는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그보다 더 나은 자리로 인도될 수 있다.
- (v) 이 타락된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의 모든 일은 그를 대적하는 수단으로 찾아오리라!

둘째로 그들은 이런 유혹의 악에서 게으른 믿음을 자극하고 그것을 벗어나려는

격려를 받아야만 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들은 육적욕망과 인간적 소망과 맞서 홀로, 혹은 다른 사람과 함께 열심히 기도하도록 격려를 받아야한다. 그들은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큰 열심으로 권면을 받아야한다. 즉 원하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그것들을 행하도록 다소 강요되어야 한다. (시77:1,2, 130:1,2, 롬4:18)을 보라)

이런 치료가 그들의 일을 행하도록 하기위하여 "묶는 일과 푸는 일"의 목회적 권세가 성경 속에 묘사된 형태대로 사용되어야한다. (삼하12:13 대하5:20) 만일 이런 경우에 어떤 개인의 마음을 우울하게 한다면 그에 대한 치료책이 개인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생활 스타일의 실패는 그리스도인이 자 범죄를 범할 때 일어나는데 마치 노아의 술 취함과 다윗의 간음과 베드로의 부인과 유사한 예에서 찾을 수 있다. 내주하는 은혜의 능력과 지위는 죄의 권세를 느끼고 경험하는 데서 잠간동안의 기회를 상실해버린다. 율법은 타락한 사람들에게 복음과 함께 설명되어야한다. 죄에 대한 모든 새로운 활동은 믿음과 회개에 대한 새로운 활동을 필요로 한다. (사1:4, 16,18)

7. 신자와 불신자들과 함께 있는 교회들. 이것은 우리 회중의 전형적인 상태이다. 어떤 교훈은 성경적 한계와 상황이 관찰하는 한, 율법과 복음에서 그들에게 설명되어야한다. (요7:37을 보라) 이것은 선지자들이 악인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고 회개한 사람에게 메시아의 구원을 약속하는 것은 이것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만일 회중의 어떤 이들이 실망한다면 그 남은 자는 언제 강팍해 지는가? 무엇을 행하여야 하는가? 그 대답은 이렇다. 강팍한 사람들은 인격의 한계 내에서

율법이 적용되도록 생각의 죄가 무엇인지를 청중해야 한다. 그러나 고통하는 양심은 특별히 그것에 적용하는 복음의 소리를 듣도록 도와 주어야한다.

8. 적용의 다양성

적용은 정신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 두 종류로 이루어진다.

정신적 적용

정신적 적용은 마음과 관련을 가진 교훈 혹은 증거를 포함한다. (딤후3:16,17)

그것이 교훈을 포함할 때 성경적 가르침은 믿어야하는 것에 관해 바른 판단을 갖게 하기 위하여 마음에 알려야한다. 증거는 오류에서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 성경적 가르침을 사용하는 것이다.

거짓된 교훈을 성경 강해시 논증할 때 다음과 같은 것이 관찰되어야한다.

1. 당신이 포함된 그 문제나 토론되어야 할 질문의 상태를 충분히 이해되었는지를 분명히 하라.

2. 최근 교회를 고난에 넣는 문제만을 증명하라. 만일 그것이 과거 역사에 해결된 것이거나 사람들에게 적절치 못하거나 그들로부터 일어난 영적위험이 있다고 생각될 때 그대로 남겨두라.

이것은 버가모 교회가 이미 그들 가운데 영향을 받은 니콜라당의 교훈을 조심하도록 경고 받은 계시록 2장에 나온 상황과 같다.

3. 만일 오류가 복음의 기본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 논증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유형일 뿐 아니라(항상 그런 경우가 되어야한다) 사랑하는 태도로 행해져야한다. 여기서 이방인들과 형제 사이의 불일치를 물고 올 수 있다.

실제적 적용

실제적 적용은 생활 스타일이나 행동과 관련을 가지며 교훈과 책망을 갖는다.

교훈은 우리를 가족, 국가 그리고 교회의 문맥 안에서 잘 살 수 있는 교훈의 적용을 가리킨다.(롬15:4)

책망은 불경건과 불의로 특징짓는 생활로 나아간 것에대한 교훈의 적용이다. 이것은 타이르는 것을 포함한다. 이 타이르는 일반적으로 특별한 상황과 관련 없이 먼저 행해져야한다. 이 원리는 나단이 다윗을 일반적 비유로서 그의 죄를 알게 한 일이 사무엘하 12장에서 잘 묘사되어있다. 바울은 유사한 접근을 사용한 것을 보인다.(사도행전19:26,35,37절을 보라)

만일 이런 증거 종류가 열매를 낳지 못하면 그것은 더욱 세밀한 방법으로 표현되어야한다.(딤후5:20을 보라) 그러나 죄에 대한 증오의 표현은 항상 죄지은 사람들에게 대한 분명한 사랑의 표현이 동반되어야한다. 가능하면 언제나 목사는 그 책망 안에 자신을 포함해야한다. 이런 방법으로 그의 설교와 가르침과 상담은 부드럽고 친절의 영으로 표현되어야한다. (참고, 단4:16-19, 고전4:6, 갈2:15)

다른 적용 방법은 성경의 모든 구절과 관련시켜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루터교인인 맛디아(Matthias Flacius Illyricus)(1520-75)가 예수께서 단지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말고 오히려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라는 마태복음 10장 28절을 인용한 것이 가치 있을 것이다.

이 본문에서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된 교훈의 폭 넓은 다양성을 이끌어내는 것은 쉽다.

교훈(Doctrine)

1. 우리는 필요할 때 언제나 우리가 아는 교훈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우리는 마치 우리의 소유물이나 우리의 생명의 손실의 위험을 의미한다 할지라도 이런 고백을 해야 한다.
3.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진리에 대해 가지는 가치와 타협함으로서 우리 생활의 가치를 경멸해야한다.
4. 영혼과 몸으로 경험하게 된 영원한 형벌이 그리스도와 그의 진리를 부인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준비되어있다.
5.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바로 하기위하여 의도적으로다스리시고 바로 인도하신다.
6. 하나님의 섭리는 일반적일 뿐 아니라 특별하지만 우리 머리카락 하나에 이르기까지 가장 작은 부분을 간섭하신다.

책망(Refroof)

1. 마음에 믿음과 신앙의 바른 견해를 갖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것이 인간 앞에서 어떤 것을 시인하고 긍정하는 것이 잠간 동안 인간의 능력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마치 장소와 시간과 사람들의 상태가 무한한 위험에 직면할 때 필요한 것처럼 정말 잘못이다.
2. 에피큐리안들은 인간의 일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위엄을 넘어 생각하기에 신적 섭리를 부인함으로 오류가 있는 것이다.

3. 스토익은 만물이 운명(혹은, 어떤 불가항력적인 필연성에 의해)으로 통제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류가 있다.
4. 우연과 행운으로 신적섭리의 지혜로운 작정을 나타내는 사람도 역시 잘못이다.
5. 펠라기우스파들은 비록 그들이 인간의 능력 안에서 자기 즐거움에 믿음을 포함시키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지속시키며 끝까지 그것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힘을 보장하는 것에 더 힘을 두기 때문에 오류가 있다.
6.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의존하는 것보다 외적이고 흔들리는 재물을 의존할 때 생기는 다른 오류들.

지침(Instruction)

1. 당신은 자신의 능력의 범위 안에서 모든 인간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한 하나님이심을 배웠기 때문에 생각 속에 하나님에 대한 참된 두려움을 갖기 위하여 노력해야한다.
2. 당신은 자신을 버리고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항상 바라는 범위에서 인간의 일들을 경멸하는 것을 배워야한다.
3.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대한 생각은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그의 도움을 구하고 모든 일에 도움을 받으며 마침내 두려워할 것 없이 합당하시다면 거기서 구해주신다는 것을 믿어야한다.

교정(Correction)

1. 그리스도의 이런 말씀은 진지한 사랑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의 소홀히 함을 고치신다. 그래서 그것으로 불타는 사람들은 그들의 생활을 그의 이름에 위탁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으신다.
2. 역시 여기에 모든 일에 그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치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솔히 여김에 대한 비평주의가 있다.
3. 여기에는 그의 섭리 안에 우리와 관련을 가진 모든 일의 다스림과 방어해 주시는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치 않는 사람들에 대한 교정이 있다.
4.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물을 돌보시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기서 책망을 받는다.

성경의 모든 구절은 이런 방법으로 통제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경우, 모든 교훈을 설명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나 단지 현재의 경험과 교회의 상태에 적절히 적용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설명해야한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많은 순수한 적용으로서 지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소수의 제한된 몇 사람에게만 주의깊이 적용되어져야한다.

9. 기억의 사용

마음(혹은, 기억)으로부터 직접 설교한다는 것이 습관적이기 때문에 어떤 일은 기억의 사용과 관련시켜 언급되어야한다.

기억하는 곳과 사상을 의존하는 사람들이 설교를 어떻게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지를

가르치는 것처럼, 인위적인 기억은 도움을 주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용납될 수 없다.

1. 기억을 자극하기 위하여 사상의 자극을 포함시키는 기억의 도구들은 우리를 비성경적 활동 속에 집어 넣는다. 이 방법은 불합리하고 무가치하고 실제적인 기괴한 생각들을 요구한다. 그것은 그의 가장 부패한 욕망을 높이고 불태우려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러하다.

2. 기억의 인위적 방법들은 마음과 기억을 둔하게 한다. 그들은 단순한 기억보다 오히려 삼중의 요소, 즉, 장소의 기억, 이미지의 기억, 실제로 말하려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기억을 필요로 한다.

만일 설교를 준비할 때 우리는 주의 깊이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일, 즉 격언적, 삼단 논법적, 혹은 사과의 방법에 따라 교훈의 여러 증거와 적용, 적용의 예화, 그들을 설명하려는 순서를 마음에 새김으로서 도움을 많이 받는다. 우리가 사용할 분명한 말에 대하여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호레이스(Horace)가 말한 것처럼 낱말들은 “미리 묵상한 것을 기꺼이 따르게 된다.”

설교 원고의 말을 그대로 암송하는 훈련은 많은 유익을 주지 못한다. 한편으로 그것은 막대한 수고가 들어가고,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그 장소를 잃어버린다면 회중은 혼란 상태에 들어가기 쉽고 우리의 마음이 혼란에 빠지기 쉽다. 더욱이 이런 연습은 발음, 행동의 자유와 성령이 주시는 영적 사랑의 흐름을 방해한다. 이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우리 기억으로 인하여 우리를 떨어뜨리려는 억압을 받기 때문이다.

10. 말씀을 설교함 (Preaching the Word)

우리는 설교 본질의 준비에 대하여 논의했다. 지금 우리는 실제적인 설교 자체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두 요소인 (i) 인간 지혜를 감추는 것과 (ii) 성령의 논증과 드러내시는 것이 있다. 인간의 지혜를 설교의 내용이나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서도 감추어져야한다. 말씀의 설교는 하나님의 증거이며 인간기술이 아닌 그리스도 지식의 증거이다. 더욱이 청중들은 그들의 믿음을 인간의 은사에 두어선 안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두어야한다.(고후2:1,2,5) 그러나 이것은 강단이 지식과 교훈의 빈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목사는 개별적으로 일반적인 예술과 철학을 자유롭게 사용할 뿐 아니라 그의 설교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독서의 다양성을 이용할 수도 있어야하고

사용해야만 한다. 그러나 공적인 강해에서 이것들은 회중에게 숨겨져야 하며 그들 앞에 과시하듯이 해선 안된다. 라틴 격언에 진정한 기술은 기술을 숨기는 것이라는 *Artis estiam celare srtem* 이란 말이 있다.

“성령의 논증”(고전2:40)은 설교에 있어서 말씀의 사역자가 모든 사람(복음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이 설교자 자신이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말씀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실체가 되어야한다.(미3:8, 고전2:4, 14:24,25 4:19,20) 이것은 그의 사역을 살아있고 역동적이게 하는 일이다. (눅11:27)

이런 “논증”은 언어와 제스추어에도 표현되어야한다. 연사는 영적이어야 하고 은혜스러워야 한다. 영적 연사는 성령이 가르치는 연사이다. (고전1:13) 그것은 청중의 이해에 단순하고 분명하며 * 하며 성령의 위엄을 표현하기에 적절해야한다. (행17:2,3:2 고후4:2-4 갈3:1)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의 특정한 단어들이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귀절을 사용하거나 다른 어떤 귀절을 설교에 사용해선 안된다. 이것은 말한 것과 다른 것 사이의 관계를 알 수없는 청중들의 마음을 * 하게한다. 더욱이 어떤 측정한 말들은 말한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들의 노력을 돕기보다 도리어 방해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가까운 주제에서 다른 것으로 옮겨가는 경향을 갖게 한다. 역시 이런 관련을 가진 단순한 이야기나 저속하고 어리석은 진술을 피해야한다.

은혜로운 연사는 마음의 은혜를 표현한다.(눅4:22, 요7:46) 이런 은혜는 사람들과 사역에도 필요하다.

사람에 대한 은혜는 마음의 거룩이며 부끄럼이 없는 생활의 거룩이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을 목사의 자격을 말하진 않지만 어떤 이들로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그것

없이 그 사역을 행할 수 없다.

1. 말씀의 교훈은 이해하고 실행하기에 힘들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그 사역자는 자신의 메시지의 한 모델과 타입으로서 자신의 본으로 가르치는 것을 표현해야한다. (빌4:8 딤후4:12 벰전5:3)

2. 사람이 만일 그의 마음에 말씀의 내적인 감각과 경험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성경을 이해했다할지라도 경건하지 못한다.(창18:17-19 시25:8,9 람3:7)

3. 하나님은 경건한 생활과 연결되지 않은 경건한 언사를 싫어하신다.(시50:16,17) 나지안즈스의 그레고리(Gregory of Nazianzus 329-389)가 말한 것처럼, 마치 자기 몸의 질병의 증거를 가진 의사를 보는 것처럼 자신의 길에서 방황면서 다른 사람을 안내하려는 사람을 보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4. 목사가 자신의 유약성을 가리우고 자신을 분명히 나타내려고하지 않으려고 그 유약성을 덮어버리려는 것은 사역의 비밀 중 하나이다. 보통 사람들은 말씀과 사역자를 구별하지 않는다. 그들은 목사의 인격을 접근하고서 사역의 중요성을 대한다. 헤롯은 세례요한이 선한 사역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세례요한의 말을 들었다.(막6:20) 나지아누스의 그레고리는 그가 "온전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이 악하게 살면 다른 손을 제쳐두고 한 손으로만 노크한 곳에 머문다는 말을 할 때 바른 것을 강조했다. 존 크리스소스톰(John Chrysostom)(347-407)은 마태복음

20장을 주석하면서 “가르침과 삶으로 가르치는 교회의 선생들은 어떻게 잘 살 수 있는지를 가르치자. 그러나 그릇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자신을 어떻게 정죄하는 지를 가르친다.”고 말했다. 또 “말로서 지혜를 보여주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당신의 삶으로 나를 가르치는 것은 최상의 가르침이다.”고 말했다. 그리고 “말씀은 그 영혼에 행하는 것만큼 위대한 인상을 주지 못한다.”고 했다.

5. 악한 목사는 안들어나든지 드러나든지 간에 거룩하고 전능한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치 못하다.(레10:3, 사6:6-8, 렘15:19)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악한 사역자들을 두렵게 하는 이유이다.(삼상2:17,25)

거룩 (Holiness)

거룩은 설교자와의 관계에서 다음 요소를 갖는다.

1. 선한 양심(행24:16, 고후1:12, 딤후1:19). 이것 없이는 설교의 입이 닫히게 될 것이다.(사56:10)
2. 우리가 설교하려는 교훈의 내면적 감각. 태울 수 있는 나무이지라도 불이 없으면 태워지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경건한 이웃에 대한 경건한 욕망을 격려하는 사람들은 먼저 그 자신에게 경건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한다. 그래서 특별한 설교가 필요로 하는 응답이 무엇이든지 먼저우리의 마음에 개인적인 자극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청중 안에 불을 붙을 수 있다.
3.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의 경외 의식으로 채워진 하나님 경외심으로 우리는 진지하고

근신하는 마음으로 말할 것이다.

4. 사람을 위한 사랑(살전2:7). 이런 애정을 격려하기위하여 목사는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심각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해야한다. (삼상12:23)

5. 또한 목사는 그의 일관성, 정직성, 심각성 그리고 신실성을 갖추어야한다. 그는 그의 회중의 성격을 앎으로서 개인적, 공적으로 이웃을 존경하는 법을 배워야한다.

6. 그는 강한 느낌을 제약하면서 내적으로 조절해야한다. 이런 행동과 제스처의 외적 스타일은 조절되어야하고 앞을 내다보는 자세여야 한다. 이런 방법으로 그는 위엄과 권위를 드러낸다. 결과적으로 그는 탐욕도 없고, 술 취하지 않으며, 소송하기 좋아하지 않으며, 싸우기 좋아하지 않으며, 역시 분노가 폭발해서도 안 된다. 젊은이들은 경건에 몰두하고 청년의 정욕을 제어해야한다.(딤후4:7)

은혜(Grace)

목사의 은혜는 다음 특질로 이루어진다.

1. 그는 가르칠 수 있어야한다. (딤후3:2) 바울은 이런 은사가 나타나야한다고 강조한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너무 본질적인 것이기에 이것이 없으면 안된다. 이것은 나니아주스의 그레고리가 감독직을 거절한 이유이다. 데오피락(Theophylact)은 이 구절을 “가르침의 의무는 다른 무엇보다도 감독의 본질이다”고 했다. 정말 이것은 니케아와 밀레투스의 종교회의에서 한 목사의 이름을 들어 처벌하는 대신 복음전파를 허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설교자가 위대하신 여호와와의 대사로서 말하는 권위(딤후2:15, 벰전4:11)

3.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데 있어서 그는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 남녀가 구원에 이르도록 선택하신 경륜을 이루며 효과있게 행하는 열정(욥32:18,19 골1:28,129, 딤후2:25)

신체적 제스처

제스처는 음성과 몸의 행동을 포함한다.

음성은 모든 이가 듣도록 충분한 소리로 해야한다. (사58:1, 요7:37 행2:14) 한 설교에서의 교훈을 강해함에 있어서 우리는 더 많은 설명을 조절해야하고 그 권면이 더욱 큰 열심으로 이루어야한다. 그들 자신들의 방법에 하나님의 메신저로서의 은혜를 입은 몸의 제스처는 위엄이 있어야한다. 그러므로 설교자가 한편으로 자기 몸통을 곧게 단단히 세우고 다른 면으로 팔과 손과 얼굴과 눈으로 표현해야하고 자기 마음의 영적 사랑을 적절히 표현해야한다.

성경은 신체 행위의 전달 능력에 관한 예를 제공한다. 눈을 들어 올리며 행하며 손은 확신을 보여야한다(대하6:13,14 행7:55). 눈을 아래로 향하는 것은 슬픔과 엄위를 가리킨다.(눅18:13) 제스처에서 우리는 더 많은 원리를 말할 수 없지만, 이 부분은 존경받는 경건한 목사들의 본이 하나의 가이드가 될 것이다.

II. 공기도(Public Prayer)

우리는 그동안 말씀의 설교를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공적 기도에 관한 교훈을 말하려고 한다. 이것은 예언의 두 번째 부분이다. 그것은 목사가 하나님을 부르는 백성의 음성이다.(삼상14:24 눅11:1)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다음의 것을 주목해야한다.

1. 공 기도의 주제는 백성의 유약함과 죄가 되어야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어야 한다. (딤후1:1,2) 터틀리안은 말하기를 “우리 모두는 모든 황제들의 장수, 평안한 통치, 안정된 가정, 강한 군대, 성실한 의회, 충성스러운 의제, 평화로운 세상, 백성들과 가이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한다”고 했다. 또 다시 “우리는 그들의 목사들과 권세를 위해, 때의 상태와 그들의 조용한 사역, 그리고 황제이 장수를 위해 기도해야한다.” 주님의 기도는 6가지 주제들 즉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복종, 생활의 보존, 죄 용서, 그리고 영혼의 강건함을 기도함으로서 이 부분을 담당해야한다.

2. 기도 형태는 다음과 같아야한다. 목사 자신의 단일한 목소리가 기도에 이용되어야한다. 침묵 가운데 연합된 회중은 기도의 마지막에 동의하는 의미로 “아멘”이라고 해야 한다. (느8:6, 행4:24, 고전14:16) 이것은 저스틴이 “인도자가 기도하

감사를 마칠 때 모든 사람은 은혜로운 찬양 소리를 듣고 아멘이라는 부르짖음으로 응답해야한다.”고 말한대로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의 실제였다.

3. 그러나 회중과 함께하는 기도를 표현하는 한 음성은 이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전14:15) 그것은 날카로운 통명스러운 형태의 기도로 드러져선 안되고 확실한 간구의 흐름으로서 중언부언하지 말아야한다.(마6:7)

4. 기도에는 3가지 요소가 있는데 (i) 기도의 내용을 주의 깊이 생각하고 (ii) 그 주제를 적절한 순서대로 제시하고 (iii) 회중을 교화시키는 방법으로 공적으로 만들어진 기도를 표현해야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

요약

설교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정경에서 본문을 분명히 읽는다.
2. 그 뜻을 설명하면서 성경자체의 빛 안에서 읽는다.
3. 그 구절의 자연적 의미에서 유익한 몇 가지 교훈의 주제들을 끌어낸다.

4. 설교자가 적절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회중의 생활과 실제에 해석된 교훈을 직접 평이한 말로 적용한다.

그 요점은 그리스도 한 분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위하여 설교하라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